| 현불 논단 |

디지털미디어와 新난독시대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터넷 텍스트 읽기 보편화되며
젊은 세대 난독 · 오독 심각 수준

미디어 시장 변화에 신문 '위기'
강의서 신문 샘플들 보여주기도
종이 · 디지털 읽기 차이점 많아

디지털 이행 흐름 막을 수 없어
인간과 미디어, 누가 주인인가
새로운 기술에 합리적 대응 필요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텍스트 읽기가 보편화 되면서 젊은 세대에 텍스트 혐오증이 생겼다고 한다. 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과 잘못 이해하는 오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읽기를 버거워하고 귀찮아하는 현상은 기성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미디어의 지평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장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사실 읽기 문화만이 아니라 미디어 지형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까지 주류 미디어로 자리해온 책도 신문도, 심지어 TV도 스마트폰 속으로 흡수된지 오래이다. 종이신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강의시간에 종이신문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 대학교수의 이야기는 쇠락위기에 처한 아날로그 미디어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의 기술 자체가 이용자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결정론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미디어의 이용은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낳게 되는데, 그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구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개별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이다.

신문의 기술적 기반은 인쇄술이다. 정보를 지면에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문자 · 이미지 · 사진 같은 요소가 정보전달을 위한 주된 기호체계로 사용된다. 반면에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미디어는 문자 · 이미지 ·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 음성 ·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 복합 양식의 텍스트를 제공한다. 하나의 텍스트에 혼재되어 있는 동영상, 음성 등의 요소들은 텍스트 읽기를 어렵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종이 텍스트 읽기는 전통적인 읽기 관습을 따르는데, 이 전통적인 읽기 관습은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는 음독과 조용히 읽는 묵독을 근간으로 한다. 이 음독과 묵독의 공통점은 이 방식의 읽기가 몰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쇄된 텍스트 읽기는 결국 집중력이라는 행동패턴을 습관화하여 논리파악, 정보 분류, 장기기억에 유리하다.

반면, 디지털 텍스트 읽기는 전통적인 읽기 관습인 음독과 묵독과는 차원이 다른 읽기 방식을 요구한다. 소위 다중읽기가 그것인데, 읽어 내려가는 순서를 파괴하는 비선형적 읽기이며, 텍스트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주의 기울이기를 요구하는 읽기 방식이다. 이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몰입을 저해함으로써 피상적 읽기라는 행동패턴을 습관화하게 한다.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텍스트 읽기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 즉 책과 신문을 읽는 것이 읽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몰입을 통한 이해력과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을 구축한 사람은 디지털 텍스트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류 미디어의 흐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날로그의 장점만을 고집하며 디지털의 단점을 부각하는 자세로는 디지털 기술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디지털 세대의 텍스트 혐오증을 해결해 낼 수 없다.

미디어의 기술 자체가 이용자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맥루한의 주장은 인간이 테크놀로지에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자 경고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과 미디어, 이 양자 중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社說

불교 항일운동사 연구 절실하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이 자주와 자존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필두로 시작된 독립운동에서 만해 스님, 용성 스님 등이 항일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00주년을 한 해 앞둔 2018년, 불교 항일인사 발굴과 조명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 중심에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불교사회연구소가 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올 연말 발간 계획 중인 5권 분량의 사료 모음 자료집이다. 이는 불교사회연구소가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개인소유품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쳐 수집한 것이다.

특히 80인의 항일인사 판결문 조사 사업은 가장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현재 알려진 불교계 항일인사 외에 법명과 속명이 일치하지 않아 항일인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료집이 발간되면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영향력이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떠나 온 국민이 함께 떨쳐 일어나 자주독립을 소리쳐 외쳤던 3.1 독립운동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사회연구소의 이 같은 사업은 반가운 일이다.

암울했던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불교 항일인사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선현들의 유업을 잘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후학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1년도 안 남은 3.1운동 100주년의 준비 과정동안 불교 항일운동사가 제대로 연구되길 바란다.

군종병을 청년불자로 만들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큰일을 해냈다. 1월 25일 군종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군법당 지킴이로 알려져 있는 군종병은 군승법사와 함께 군장병들의 신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재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저조했다.

높은 신심으로 군생활동안 법회와 각종 불교의식을 집전하기 까지 하지만 전역 후 이들을 불교계로 이끄는 손길은 부족했다. 많은 군승법사들이 전역 군종병들에게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할 것을 권유하지만 정작 사찰에 가면 또래 청년들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번 불교계 청년단체들과의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군포교 과제 중 하나인 불자장병의 전역 후 신행활동이 한층 진일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방부 단일 선발로 변경되는 군종병 수급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 군종병은 불교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수계 경력과 불교기초교리 및 상식이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그렇기에 다양한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지원한다면 신행 경력을 군포교 일선에서 활용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한국불교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년으로 이어지는 연령별 불교 신행의 고리를 구축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청년 신행단체와 군종병 네트워크는 이 고리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불교계는 어린이 단체와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와 대학생 단체, 대학생 단체와 성년 단체간 신행 정보 공유와 안내 등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역주해야 한다.

특별기고
은사 현성 선사를 추모하며

"모든 것이 스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 스님 (사)자비명상 이사장

하루도 쉬지 않으시던 원력 이어가겠습니다.

청천벽력이 어떤 것인지를 사무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은사 경하현성 대선사께서 그렇게 원적에 드실 줄은 그야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년벽두, 1월 20일 혹한의 새벽에 들려 온 은사 스님의 열반 소식은 차라리 꿈이길 바랐지만, 청천벽력의 믿지 못할 현실이었습니다.

창졸지간에 닥친 일, 경황없이 5일장으로 영결식과 다비를 마치고 나니 새로운 슬픔과 회한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합니다. 손수 건립하여 자비행을 펼치시던 도선사포교당 현성정사가 텅 빈 듯 허허롭고, 억척같은 원력으로 도량을 단장하고 확장하신 도선사가 꿈속의 집인 듯 아득하기만 합니다.

출가 사문이 중생을 위한 원력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은사 스님만큼 많은 일을 일생동안 지속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사 스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삼베처럼 짜인 일과를 어김없이 지키셨습니다. 혜명양로원, 안양교도소, 민주평통 서대문협의회 사무실, 동국대학교, LA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청담학원, 각급 부대의 군 법당과 논산훈련소 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등등 손이 미치는 곳은 언제나 손길을 드리우셨고, 눈길이 닿는 곳은 한 틈이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1월 20일 입적한 현성 스님(사진 왼쪽)과 상좌 마가 스님(사진 오른쪽)이 함께 한 사진.

그래서 훈장과 상장, 표창장, 감사장과 공로패 등을 무수히 받으셨고, 크고 작은 직책 또한 수없이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상과 직책을 자랑으로 삼기보다는 진심어린 노력과 봉사로 수상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셨고, 주어진 직책의 이름값을 다 하셨으니 단 한 숟가락의 '공밥'도 드시지 않으셨음을 상좌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우람한 체구와 과묵한 표정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돌아서지도 못하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사 스님의 풍모요 가풍이었거니와, 무슨 일이든 원력을 세우면 끝까지 매진하시는 기질 또한 함부로 흉내 내지 못할 출격장부의 표상이었습니다.

아, 이제 텅 빈 세상을 천둥벌거숭이로 서고 보니 은사 스님의 모든 것이 가르침이었음을 사무쳐 깨닫습니다. 흰 눈썹 아래 형형하시던 그 안광이 대자대비의 광명이었음을, 우뢰와 같은 질책의 목소리가 수미산도 무너뜨릴 사자후였음을 뼛속까지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은사 스님, 잠결에 건너가신 극락 세상에서 영겁토록 정토의 햇살을 쏘이시고 도솔천의 맑은 물소리 들으시며 무생법인 하소서. 적멸의 즐거움을 누리소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